

파나마 경제 · 정치 동향

차 례

1. 일반사항	1
2. 경제동향	1
3. 정치동향	4
4. 국제신인도	5
5. 우리나라와의 관계	7

1. 일반사항

구 분	비 고
인 구	351만 명 (2012년 7월)
면 적	75,420 km ²
정치체제	대통령 중심제
대통령	리카르도 마르티넬리(Ricardo Martinelli)
국내총생산 (GDP)	354억 달러 (2012년)
1인당 GDP	20,330 달러 (2012년)
외환보유액	33억 달러 (2012년)
주요 수출품목	금, 바나나, 새우, 설탕 등
주요 수입품목	연료제품, 의약품, 차량, 철강 등

2. 경제동향

가. 국내경제

□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

- 파나마 운하 확장을 비롯한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2011~12년 연속 10%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중남미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임.

- 운송, 관광, 금융 등의 서비스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음.

- 2013년에는 전년보다 다소 둔화된 7.7%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, 향후 운하 확장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축소 전망

- 비금융 공공부문 재정적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로 2009년 GDP 대비 -1.1%에서 2012년에는 -2.6%로 확대됨.
- 당분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완료, 양호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재정 수입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.
- 파나마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이자 편의치적국으로, 2009년 OECD는 파나마를 조세정보 공개에 대한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'회색 국가군(Grey List)'으로 지정함.
 - 2011년 파나마는 프랑스와 조세정보교환협약을 체결한 후 회색 국가군에서 제외됨.

□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

- 높은 경제성장률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파나마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5.9%, 5.7%를 기록함.
- 2013년에는 경제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.6%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.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09	2010	2011	2012 ^e	2013 ^f
경제성장률	3.9	7.5	10.8	10.1	7.7
재정수지/GDP	-1.1	-2.0	-2.3	-2.6	-2.3
소비자물가상승률	2.4	3.5	5.9	5.7	3.6

자료: IMF, EIU.

나. 대외거래

□ 경상수지 적자 규모 증가 추세

- 국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소비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, 운하 확장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가 단기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.
- 경상수지 적자를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으로 보전하고 있으며, 2012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사상 최고인 38억 달러를 기록함.

□ 달러공용화제도(Dollarization) 시행

- 미 달러화가 공식 법정통화로 자국통화인 발보아는 동전만 통용되고 있으며,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환율변동 위험이 낮은 편임.
- 한편, 파나마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이 따로 없으며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적은 편으로, 다수의 외국계 금융기관이 영업 중인 중미 국제금융의 중심지임.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분	2009	2010	2011	2012 ^e	2013 ^f
경상수지	-179	-2,862	-3,874	-4,660	-4,943
경상수지/GDP	-0.7	-11.0	-12.8	-13.2	-12.5
상품수지	-2,180	-4,555	-6,017	-5,919	-6,809
수출	12,038	12,680	16,929	19,000	22,281
수입	14,218	17,235	22,946	24,919	29,090
외환보유액	3,028	2,175	2,304	3,303	3,601

자료: EIU.

3. 정치동향

가. 정치·사회

□ 마르티넬리 대통령 하의 안정적 국정 운영 유지

- 부패 스캔들과 잦은 시위로 인한 인기 하락에도 불구하고, 여당이 의회 내 다수석을 확보하여 2014년 대선 및 총선 전까지 마르티넬리(Martinelli) 대통령 하의 안정적 국정 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- 여당인 중도우파 민주변화당(CD)은 민주혁명당(PRD)과 시민당(PP)으로부터 의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의회 71석 중 40석을 차지함.
-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마르티넬리 대통령과 시민당 대표인 바렐라(Varela) 부통령 간 갈등이 발생하고 민주변화당과 시민당 간 연정이 해체된 점 등은 정국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
□ 잦은 시위로 사회 불안정 지속

- 광산개발 및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원주민들의 대규모 시위 등이 지속되어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음.
- '11년 2월, 외국 국영기업의 광산개발 참여를 허용하는 광업법 개정에 반대하는 원주민들과 환경론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함.
- '12년 10월에는 파나마 운하 주변의 국유지 매각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였고,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실시함.
- 다수의 파나마 국민들이 원주민들의 시위를 지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시위 대응이 강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마르티넬리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.

나. 국제관계

□ 미국 등과 FTA 체결로 협력 강화 추진

- 파나마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, 2012년 10월 양국 간 FTA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교역 및 투자 확대가 기대됨.
 - 미국은 파나마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2011년 기준 대미 수출 및 수입은 파나마 전체 수출의 25%, 수입의 21%를 차지함.
- 파나마는 칠레, 싱가포르('06), 온두라스('07), 과테말라('08), 캐나다('10) 등과도 FTA를 체결하였으며, 2010년 5월에는 중미-EU 제휴 협정 체결에도 정회원국으로 참여함.
 - * 중미-EU 제휴 협정: 정치, 개발협력 및 FTA에 관한 포괄 협정으로 양 지역 간 관세 특혜의 폭 및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.
- 조세회피국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, 중미 국가들과는 마약 밀매 단속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.

4. 국제신인도

<표 3>

주요 외채관련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09	2010	2011	2012 ^e	2013 ^f
총 외 채 잔 액	12,782	13,375	14,915	16,599	17,467
총외채잔액/GDP	52.9	50.3	47.3	47.5	45.8
D S R	7.5	9.2	9.7	9.4	8.1

자료: OECD.

□ 총외채 규모 증가 추세

- 파나마의 총외채잔액은 2011년 149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166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, 향후 운하 확장사업에 필요한 차입 증가로 외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- 파나마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국내 자본시장 발전이 미비하여 외부 차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, 외부 충격과 투자심리 변동에 취약함.

□ S&P와 Moody's, 파나마 신용등급 상향조정

- 2012년 7월, S&P는 견고한 경제성장 전망과 인프라 투자 증대 등을 반영하여 파나마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(BBB- → BBB) 상향조정함.
- 2012년 10월, Moody's는 미국과의 FTA 발효, 파나마 운하 확장 등을 반영하여 파나마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(Baa3 → Baa2) 상향조정함.

<표 4>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등급		종전 평가등급	
수출입은행	C1	(2011. 8)	C1	(2010. 6)
OECD	3	(2013. 1)	3	(2012.10)
S&P	BBB/Stable	(2012. 7)	BBB-/Positive	(2011. 7)
Moody's	Baa2/Stable	(2012.10)	Baa3/Positive	(2011. 8)
Fitch	BBB/Stable	(2012. 5)	BBB/Stable	(2011. 6)

5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수립: 1962년 9월 30일 (북한과는 미수교)

□ 對 파나마 무역수지 흑자 지속

○ 對 파나마 교역규모는 2012년 45.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, 1977년 이후 對 파나마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음.

- 주요 수출품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, 자동차, 석유제품 등이고, 수입품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, 원유, 합금철, 선철 및 고철 등임.

○ 2011년 기준 우리나라는 파나마의 6위 수입대상국(전체 수입의 2.7% 차지)이자 9위 수출대상국(전체 수출의 2.4% 차지)임.

<표 5>

한·파나마 교역 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09	2010	2011	2012	주 요 품 목
수 출	4,477	4,054	3,798	3,977	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, 자동차, 석유제품 등
수 입	1,091	573	394	595	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, 원유, 합금철 등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□ 對 파나마 직접투자 현황

○ 2012년 12월 말 누계 기준 우리나라의 對 파나마 직접투자액은 18억 9,304만 달러로, 파나마는 우리나라의 제 21위 투자대상국임.

-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(47.9%), 운수업(22.2%), 도매 및 소매업(15.8%) 등의 순서로 투자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